

의예과학생들의 의사소통 교육효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¹, 정신과학교실², 가정의학교실²

김 선¹ · 이수정^{1,2} · 최창진^{1,3} · 허예라¹

= Abstract =

The Effectiveness of Communication Skills of Pre-medical Students

Sun Kim¹, PhD, Soo-Jung Lee^{1,2}, MD, Chang-Jin Choi^{1,3}, MD, Yera Hur¹, PhD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¹, Department of Psychiatry²,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³,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urpose: Communication skills are essential skills which medical students need to acquire in order to become a doctor. More attention is being given to the subject but not many studies have been done in the medical education field. As communication skills are provided to students as a subject in medical educational curriculum, the assessment of its effectiveness needs to be undertaken.

Methods: In the year 2005 and 2006, second year pre-medical students at The Catholic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took ‘Communication Skills’ course in total, 180 second year pre-medical students’ survey results were used in the evaluation of the study question. The instrument used in the study was the modified and translated version of ‘Beyer-Fetzer’s Essential Elements of Communication Skills Assessment Sheet.’ The assessment sheets were used as the pre-test and post-test to analyse the differences, which were put through the paired t-test.

Results: All categories of communication skills showed an improvement. For year 2005, meaningful differences were shown in ‘opening the discussion (p=.005)’ and ‘sharing information (p=.008)’, whereas in 2006, improvements were shown in all areas.

Conclusion: From the result, it is clear that in order to create an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program, the content should be more structured and focused on the program objectives.

Key Words: Communications skills, Pre-medical students, Pre/post assessment

교신저자: 허예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번지

Tel: 02)590-4989, Fax: 02)591-7185, E-mail: shua@catholic.ac.kr

* 이 연구는 2005년도 한국의학교육학회 연구 장려상으로 이루어졌음.

서론

최근 의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직업성에서 의사소통능력이 강조됨에 따라 의학교육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의사소통기술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은 1999년 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AGCME)에서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기술’을 의사의 핵심 능력으로 발표하였고 (Horowitz, 2000), 1990년대에 들어서 선진국들은 앞 다투어 21세기 의학교육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이 비전의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공통적인 내용은 바로 인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에 관한 교육이다 (안덕선, 2006). 우리나라에서도 의사소통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최근 ‘의사소통교육’을 주제로한 학술대회가 개최되고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이 기사화되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¹⁾

이러한 관심은 의사소통과 관련한 연구들의 발표로 이어지고 있다. ‘의사소통’과 ‘의학면담’이라는 핵심용어를 사용하여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Korean Medical Database)’를 통해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색한 결과,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학습이 임상수술, 의사소통능력,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유문숙·유일영 (2001)의 연구, 현명선 외 (2003)의 문제중심학습방법을 적용한 의사소통론 교과목 개발과 적용에 대한 연구 그리고 김신아 외 (2004)의 집단 프로그램을 통합한 의사소통론 교과목 운영의 개발과 그 효과를 살펴본 관련 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의사소통을 주제로 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다 (이정권, 1999; 김현진·박은희, 2002; 최창진, 2004).

이와 같이 의사소통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증

대되고 있으나 의학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연구들은 대부분 간호학 관련 연구들이며, 의학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이정권 (1999)의 의과대학생의 첫 환자면담 경험을 다룬 연구, 김현진·박은희 (2002)의 일개 의대생의 2년간 의학면담기법 교육 전후의 인식도 변화 연구 그리고 최창진 외 (2004)의 임상실습을 마친 의대생의 환자 중심적 의사소통 기술과 태도에 대한 연구에 불과하였다. 또한 현재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X세대가 아닌 Y세대라고 불리는데 (Webster, 2005), 새로운 세대로 불리는 이들에 대한 의사소통의 형태나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동안의 우리나라 의학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시키는 교육이 미비했으며 교육내용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도 매우 부족하다는 면에서 이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특히, 의학 전문직업성은 의학교육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교육되어야 하는 바, 의예과 과정에서 의학 전문직업성 관련 교육과정이나 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선행 연구의 미비로 매우 흥미로운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의예과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의사소통 강화를 통하여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의사소통 기술의 영역별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 점수와 사전-사후 검사에서 차이가 있는지, 둘째, 7가지 영역의 문항별 평균점수와 사전-사후 검사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셋째, 학생들의 의사소통 수준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가.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가톨릭의과대학 2005학년도 의예과 2학년 학생 89명과 2006학년도 의예과 2학년 학생 91명으로 총 180명이다.

의사소통 수업은 내용은 의예과 2학년을 대상으로

1) ‘제15차 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 2004년 5월 27일, 대한의학회; 임재춘(2003). ‘전문직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 제14차 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한국 의학교육학회·대한의학회, 13-64; ‘진공의 55%, 원내서 의사소통 시 장애 느낀다’ 2004년 6월 4일자 기사, 청년의사 (<http://www.fromdoctor.com/newscenter>); ‘의료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중요성’ 2006년 1월 2일 특집 기사, 청년의사 (<http://www.fromdoctor.com/weekly>).

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개발되었다. 2005학년도 의사의소통 수업의 교육내용은 1쿼터와 2쿼터로 기간을 나누어서 실시하였다. 첫 번째 쿼터에서는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성격검사를 실시하였고, 두 번째 쿼터에서는 전체 학생을 2개조로 구분하여 1조는 교실에서 다양한 상황에서의 역할극을 실시하고, 2조는 소그룹으로 모여 2인 1조 의사소통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의 역할극을 연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주 후 조를 바꾸어 동일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2005학년도의 의사소통 학습의 특징은 대 강의실에서는 교수자가 촉진자의 역할을 하며 수업을 안내하였고, 소그룹으로 역할극을 통해 의사소통을 학습하는 조의 경우 다양한 의사소통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시나리오와 각종 정보가 들어있는 학습안내책자를 통해 스스로 수업을 주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록 1 참조).

2006학년도 수업의 경우, 2005년도의 학생설문결과와 수업을 진행한 교수들의 의견을 모아 “Beyer-Fetzer Conference on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in Medical Education”에서 다양한 의사소통 모형과 연구자료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의사소통의 필수요소(Essential Elements of Communication Skills)”의 내용을 보다 많이 포함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 개선하였다. 예를 들어, “정보수집하기”와 관련하여서는 “개방형, 효율적 질문하기, 전달 내용 요약, 재진술하기, 경청, 반응, 관심주기,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내용을 강의하고, 이와 관련한 학습활동을 하는 시간이 주어졌다(부록 1 참조).

2005학년도와 2006학년도의 의사소통 수업의 기간은 동일하였으며, 두 수업 모두 많은 강의보다 학생들 간의 소그룹 활동, 토의와 발표로 구성되었고, 다양한 역할극 시연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의사소통 기술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나.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연구 도구는 “Beyer-Fetzer Conference on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in Medical Education”에서 다양한 의사소통 모형과 연구자료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의사소통의 필수요소(Essential Elements

of Communication Skills)” 목록을 토대로 연구자가 번역 제작한 의사소통 기술 평가지이다(부록 2 참조). 평가지의 구성은 ‘관계형성하기,’ ‘대화열기,’ ‘정보수집하기,’ ‘상대방의 시각 이해하기,’ ‘정보 공유하기,’ ‘의견일치시키기,’ ‘마무리 짓기’라는 7가지 영역에 대하여 각각 3~4가지 문항으로 되어있다. 사전 검사의 경우 2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사후검사의 경우 ‘수업 방법 대한 만족도,’ ‘필요성,’ ‘습득한 기술에 대한 우선순위’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3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평가되었으며, 사전검사는 의사소통 수업의 첫 시간에 실시되었으며, 사후검사의 경우 마지막 시간에 실시되었다.

연구의 문제의 분석방법은 의사소통 기술의 영역별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영역별, 문항별 사전-사후 검사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결 과

연구에 사용된 사전, 사후 설문지의 신뢰도를 2006년도에 실시된 설문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사전 설문지의 경우 알파계수가 0.83, 사후 설문지의 경우 0.82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가. 영역별 평균점수와 사전-사후 검사의 차이

의사소통기술의 평가 방법은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의사소통기술을 평가하는 것으로 의사소통기술에 대한 일종의 자신감 평가라고도 볼 수 있다. 2005학년도와 2006학년도의 의사소통 수업에서 사전, 사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는 사후 결과가 높게 나타나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 학생들 행동의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없었지만 학생들의 교육 후 의사소통기술에 대한 자신감 상승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총량평균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Table I).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비교분석을 위해 영역별 그리고 항목별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Table I. Communication Skills Self-test Results of Year 2005 & 2006

	2005		2006		T-score	p-value
	Before	After	Before	After		
Total mean score	4.60	4.77	4.81	5.23	-2.204	.271

Table II. Statistics and t-scores of Communication Skills by Category

Category		Mean		SD		T-score		p-value	
		2005	2006	2005	2006	2005	2006	2005	2006
Building relationship	Before	4.65	4.82	1.09	1.13	-1.73	-5.75	.087	.000
	After	4.83	5.41	.94	.86				
Opening Discussion	Before	4.49	4.86	1.03	.99	-2.91	-4.33	.005	.000
	After	4.81	5.35	.91	.80				
Gathering Information	Before	4.54	4.63	1.71	.80	-1.53	-7.97	.129	.000
	After	4.81	5.35	.78	.78				
Understanding one's perspective	Before	4.30	4.53	.86	.95	-1.59	-	.115	-
	After	4.47	4.53	.82	.95				
Sharing Information	Before	4.49	4.82	.88	.90	-2.69	-7.45	.008	.000
	After	4.78	5.46	.82	.76				
Reach Agreement	Before	4.87	5.01	.85	.81	-0.48	-6.44	.636	.000
	After	4.91	5.57	.75	.69				
Providing Closure	Before	4.88	5.03	.94	.90	-0.52	-5.64	.603	.000
	After	4.94	5.57	.92	.69				

의사소통 기술 평가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사소통 기술의 7가지 영역에 대한 평균 점수는 Table II와 같이 나타났다. 모든 영역에서 보통 수준 이상인 평균 4.0점을 넘고 있으며, 사전 검사에서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인 영역은 ‘상대방 시각 이해하기’였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영역은 ‘마무리 짓기’ 영역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사 결과 모든 영역에서 사전 검사에 비해 향상된 점수를 보였다. 2005년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영역은 ‘대화 열기 (p=.005)’와 ‘정보공유하기 (p=.008)’ 영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6년도의 경우 ‘상대방 시각 이해하기’ 영역을 제외한 6개의 영역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나. 문항별 평균점수와 사전-사후 검사의 차이

의사소통 기술의 문항별 평균점수와 차이를 분석한 결과 Table III과 같이 나타났다. 2005년도 분석의 경우, 사전 검사에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던 문항은 ‘마무리 짓기’에서 ‘더 이상 궁금한 점이 있는지 질문할 수 있다’ 문항으로 평균 5.12점을 기록해 이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실력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상대방의 시각 이해하기’ 영역에서 ‘선입견을 버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다’로 평균 점수는 4.13점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사에는 대부분의 문항의 평균 점수가 높아졌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7개로 나타났다. ‘다양한 의견이나 상충되는

Table III. Statistics and T-scores of Communication Skills by Items

Category	Items		Mean		SD		t-score		p-value	
			2005	2006	2005	2006	2005	2006	2005	2006
Building relationship	Greeting, show interest	Before	4.43	4.57	1.50	1.40	-0.68	-4.87	.501	.000
		After	4.51	5.19	1.23	1.15				
	Tone of voice	Before	4.57	4.71	1.21	1.24	-1.91	-5.68	.059	.000
		After	4.82	5.40	1.05	.96				
Eye contact	Before	4.97	5.19	1.36	1.30	-1.34	-3.42	.183	.001	
	After	5.16	5.63	1.23	1.12					
Opening Discussion	No interruption	Before	4.64	5.08	1.34	1.25	-2.00	-2.76	.049	.007
		After	4.92	5.48	1.19	1.08				
	Ask for opinion	Before	4.57	4.78	1.30	1.27	-1.24	-3.46	.217	.001
		After	4.73	5.32	1.18	1.19				
Explain, suggest	Before	4.29	4.71	1.22	1.28	-3.79	-3.89	.000	.000	
	After	4.78	5.24	1.14	1.00					
Gathering Information	Open-ended question	Before	4.73	4.52	5.85	1.15	-0.19	-7.40	.847	.000
		After	4.84	5.40	1.15	1.08				
	Yes or No question	Before	4.45	4.57	1.24	1.27	-2.53	-4.74	.013	.000
		After	4.82	5.32	1.08	1.09				
	Important message	Before	4.52	4.86	1.28	1.10	-2.09	-3.43	.040	.001
		After	4.84	5.32	1.11	1.01				
Other issues	Before	4.50	4.56	1.23	1.04	-1.86	-6.36	.067	.000	
	After	4.76	5.36	1.02	.98					
Understanding one's perspective	Listen without preconception	Before	4.13	4.62	1.47	1.36	-1.27	-3.30	.208	.001
		After	4.35	5.14	1.37	1.20				
	Control emotions	Before	4.22	4.47	1.31	1.41	-0.96	-4.17	.339	.000
		After	4.36	5.19	1.30	1.10				
	Find values, interests	Before	4.47	4.47	1.21	1.21	-0.58	-5.58	.564	.000
		After	4.56	5.29	1.11	1.01				
Show clear reaction	Before	4.40	4.57	1.30	1.30	-1.36	-4.09	.177	.000	
	After	4.61	5.21	1.27	1.21					
Sharing Information	Acknowledge situation	Before	4.44	4.70	1.02	1.19	-1.00	-4.71	.319	.000
		After	4.60	5.23	1.18	.94				
	Give more information	Before	4.53	4.74	1.13	1.15	-2.37	-4.33	.020	.000
		After	4.86	5.34	1.06	.95				
	Use easy words	Before	4.57	5.01	1.17	1.14	-1.90	-5.32	.060	.000
		After	4.84	5.63	1.06	1.07				
Mutual understanding	Before	4.41	4.82	1.07	1.05	-2.69	-6.67	.009	.000	
	After	4.81	5.63	1.15	.97					
Reaching Agreement	Give right to choose	Before	5.03	5.32	1.25	1.00	-0.56	-4.18	.575	.000
		After	5.11	5.81	0.99	.95				
	Follow the decision	Before	5.08	5.19	1.14	1.12	-0.26	-3.61	.796	.001
		After	5.11	5.73	1.10	1.03				
	Extra information	Before	4.72	4.91	1.17	1.06	-0.95	-3.75	.347	.000
		After	4.85	5.35	1.10	.92				
Come to an agreement	Before	4.64	4.63	1.11	1.09	0.49	-6.30	.620	.000	
	After	4.57	5.41	1.05	.82					
Providing Closure	Ask more questions	Before	5.12	5.09	1.01	1.08	0.97	-3.52	.334	.001
		After	5.00	5.54	1.12	1.12				
	Adjustment, summary	Before	4.81	5.01	1.04	1.05	-0.01	-4.46	.996	.000
		After	4.81	5.58	1.16	.99				
Arrange next meeting	Before	4.72	4.97	1.14	1.07	-2.04	-5.06	.044	.000	
	After	5.00	5.63	1.11	1.05					

의견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문항과 '더 이상 궁금한 점은 없는지 질문할 수 있다' 문항의 경우 사후 검사에서 평균 점수가 오히려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06년도 분석의 경우, 사전 검사에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던 문항은 '의견 일치 보기'에서 '상대방에게도 선택권을 주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다' 문항으로 평균 5.32점을 기록해 이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실력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상대방의 시각 이해하기' 영역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대화할 수 있다'로 평균 점수는 4.47점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사 결과 모든 문항에서 유의수준 $p < .000$ 또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 검사에서 모든 문항의 평균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높은 학습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의사소통 수업의 중요성, 적절성, 습득한 기술 등에 대한 의견

1) 의사소통 수업의 중요성

의사소통 수업이 의사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2005년도의 경우, 사전 검사에서는 평균 6.25점 ($SD = 0.81$)을 보여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후 검사 결과 평균 5.35점 ($SD = 1.22$)으로 떨어졌으며, 차이검정 결과 $t = 7.133$, $p = .000$ 으로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006년도의 경우, 사전 검사에서는 평균 6.03점 ($SD = 0.97$)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사후 검사 결과 이보다 조금 더 높은 평균 6.24점 ($SD = 0.82$)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 의사소통 수업 내용의 적절성

의사소통 수업의 내용이 예과 2학년 과정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을 한 결과 2005년도의 경우, 평균 5.11점 ($SD = 1.23$)으로 '적절한 편이다'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8%에 해당하였다. 2006년도 조사의 경우, 평균 5.92점 ($SD = 1.10$)으

로 '적절하다'의 수준으로 나타나 2005년도에 비해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의사소통 수업 방법의 적절성

의사소통 수업에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은 강의법, 소그룹 토의, 역할극, 조별 발표 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이 이 수업에 적절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2005년도의 경우, 평균 4.82점 ($SD = 1.27$)으로 나타났다. 4점으로 평가한 학생은 19명 (31.6%), 5점으로 평가한 학생은 30명 (34.1%), 6점으로 평가한 학생은 21명 (23.9%), 7점으로 평가한 학생은 6명 (6.8%)으로 나타나 다수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2006년의 경우, 평균 5.84점 ($SD = 0.93$)으로 나타나 의사소통 수업의 적절성 수준이 2005년도에 비해 더 높게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의사소통 기술 습득에 도움이 되었던 내용

의사소통 기술 습득에 도움이 되었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는 2005년도의 경우, 에니어그램 실시, 대강의실 역할극, 소그룹 토의와 역할극 그리고 기타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의사소통 기술 습득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된 학습내용은 순수하게 학습자 주도로 진행된 소그룹 토의와 역할극 (53.4%)으로 평가되었다. 2006년도의 경우 MBTI 실시, 강의, 학습활동, 조별 발표 그리고 기타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조별 발표 (47.3%)가 가장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IV).²⁾

2)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설문내용에는 차이가 없었다. 다만, 2006학년도에는 성격검사가 에니어그램에서 MBTI로 바뀌었고, 수업내용의 변화에 따라 수업방법에 변화가 있었는데, 2005학년도에는 대강의실 역할극과 소그룹 역할극으로 크게 구분되었던 반면, 2006학년도에는 모두 대강의실에서 수업하면서 교수자의 강의와 학생들의 학습활동으로 크게 구분되었다. 2005학년도에 실시하였던 소그룹활동과 역할극은 2006학년도에서도 학생들의 학습활동으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설문지의 29번 문항에서 '의사소통 기술 습득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던 내용'을 고르는 보기로 2005학년도에는 '에니어그램 실시, 대강의실 역할극, 소그룹 토의와 역할극 그리고 기타', 2006학년도에는 'MBTI 실시, 강의, 학습활동, 조별 발표 그리고 기타'로 구성되었다. 보다 구체적인 수업내용은 <부록 1>을 참고하기 바란다.

Table IV. Useful contents in learning communication skills

Year	Content	Percent
2005	Enneagram	26.1
	Group Presentation	17.0
	Small Group & Role Play	53.4
	Others	3.4
2006	MBTI	25.3
	Lecture	6.6
	Student Activities	19.8
	Group Presentation	47.3
	Others	1.1

고찰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사전-사후 차이 검증에서 다수의 영역이나 문항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었으나 대부분의 영역과 문항의 평균 점수는 사후 검사에서 향상되었으며, 일부 영역과 문항에서는 명확하게 유의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 의사소통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김선아 외 (2004)의 연구 결과와 흡사하다. 그러나 항목별 평균 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7구간 척도임을 감안한다면 1구간 이상의 상승을 보인 항목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분석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본 교육내용이 잘 적용된 학생 위주로 교육효과를 극대로 얻은 것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다.

2005학년도 분석 결과의 경우, 의사소통 기술의 영역별 사전-사후 검사 차이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영역은 ‘대화열기’와 ‘정보공유하기’의 2개 영역에 불과하였다. 또한 문항별 사전-사후 검사의 차이 분석에서도 총 26가지 문항 중 7가지 문항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습효과가 일어나지 않은 영역도 있다는 의미로 ‘관계형성하기,’ ‘상대방의 시각 이해하기,’ ‘의견일치보기’의 3가지 영역에서는 학습효과가 없

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평가지와 학습 내용과의 연관성 부족 또는 교수자 또는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노력 부족으로 인한 현상으로 풀이할 수 있다. 차후 그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의사소통 기술 습득에 도움이 되었던 내용으로 학생들은 소그룹으로 실시한 토의와 역할극을 가장 만족스러워 한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보다 신중한 학습자료의 개발과 교수-학습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2005학년도의 분석 결과 중 의사소통 수업이 의사의 전문성 습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사전 검사의 결과보다 사후 검사의 결과가 더 낮은 평균을 나타내어 오히려 수업을 받은 후에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석으로 Judith 외 (2004)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학습의 내용이 보다 자유롭고 임상 상황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 학생들의 인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될 수 있다. 이는 수업의 대상이 의예과 학생들이었던 만큼 일반적인 의사소통 기술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구조화된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의사소통 기술의 습득은 의사-환자의 관계에 있어 핵심 기술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의사소통 수업이 의사의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2005년도의 분석결과에서 사후 검사의 평균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본 수업에 대한 목적과 목표가 학생들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예과 수준의 수업이었던 관계로 수업의 내용이 임상 상황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로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2005학년도의 분석결과와 2006학년도의 분석결과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2006학년도의 평균 수준이 2005학년도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사전 검사에서 2006학년도 의예과 2학년 학생들은 2005학년도의 학생들에 비해 자신들의 의사소통의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평상시에도 높은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2006학년도의 수업 내용이 달라진 원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06학년도의 수업 내용은 이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어떠한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가를 생각하여 그 내용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교육내용을 정하고, 관련 학습활동을 통해 기술을 익히고, 배운 내용을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후 검사에서 좋은 결과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2005학년도의 설문에서 학생들의 기타 의견으로 기술한 내용 중 ‘학생들이 직접 주도하는 수업에는 익숙하지 않다’라는 의견과 ‘일반적인 상황보다 임상 상황과 보다 직접적인 사례가 보다 효과적일 것’, ‘강의의 부족’ 등을 참고하여 2006학년도에는 순수하게 학생들끼리만 진행하는 소그룹학습을 없애고, 먼저 모든 학생들이 대강의실에서 동일한 강의를 받은 후 강의 내용과 관련한 학습활동을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였다. 2006학년도에 실시한 학습활동에서는 학습자들의 흥미로운 발표나 전체토의 등의 경험을 모든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 매우 큰 장점으로 볼 수 있다. 2005학년도에 실시한 학습자들이 주도하는 소그룹활동에서는 교수자들의 지도와 중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자유로운 학습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지만, 반면, 수업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도록 지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예과학생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 주도 학습보다 교수자의 보다 많은 개입과 지도가 가미된 학습내용과 학습방법, 그러나 배운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학습자 학습활동을 많이 준비하는 것,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동일한 학습경험을 공유하며, 수업의 목표와 제공되는 수업의 내용과 평가 내용의 일치 등이 2006학년도의 보다 높은 교육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의과대학생들

의 의사소통 기술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대학별 또는 수업의 성격에 맞도록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한 가지 측정도구가 아닌 다양한 도구를 사용했을 때보다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Hulsman et al, 2006; De Haes et al, 2005). 이는 Aspegren과 Lonberg-Madsen (2005)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의사들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의사소통 기술 요소들을 규명하는 일과, 어떠한 요소들이 강하거나 취약하고 어떠한 요소들이 더 많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내는 요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이 연구는 일개 대학, 일개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성 검사이었으므로, 여러 차례 동일한 방법의 평가를 통해 교육의 효과를 확인해 보는 작업인 종단 연구를 수행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의사소통 교육과정은 한 학년에서 일회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학년간 연계성 있는 교육과정으로 개발하여 의사-환자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환자중심 의사소통(최창진 외, 2004)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저학년에서도 많이 시도되는 문제바탕학습방법을 활용한 의사소통 수업(현명선 외, 2003) 등 기존 교과목 교수-학습 방법에 의사소통의 교육내용을 접목시킨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방법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선아 외(2004). 집단 프로그램을 통합한 의사소통론 교과목 운영의 개발과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34(3), 412-420.
- 김현진·박은희(2002). 일개 의대생의 2년간 의학면담기법 교육 전후의 인식도 변화. **한국의학교육**, 14(2), 165-174.
- 안덕선(2006.01.02). '의료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중요성.' **청년 의사**, 2006년 1월 2일 특집 기사. [On-line Available] <http://www.fromdoctor.com/weekly>.
- 유문숙, 유일영(2001).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학습이 임상수술, 의사소통능력,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 영향. **간호학탐구**, 10(1), 89-109.
- 이정권(1999). 의과대학생의 첫 환자 면담 경험: 의학면담 교육에 미치는 영향. **가정의학회지**, 20(12), 1721-1731.
- 최창진 외(2004). 임상실습을 마친 의대생의 환자 중심적 의사소통 기술과 태도. **한국의학교육**, 16(2), 169-177.
- 현명선 외(2003). 문제중심 학습방법을 적용한 의사소통론 교과목 개발 및 적용. **한국간호교육학회지**, 9(1), 144-154.
- Aspegren, K., & Lonberg-Madsen, P.(2005). Which basic communication skills in medicine are learnt spontaneously and which need to be taught and trained? *Medical Teacher*, 27(6), 539-543.
- De Haes, J.C. et al.(2005). Summative assessment of medical students' communication skills and professional attitudes through observation in clinical practice. *Medical Teacher*, 27(7), 583-589.
- Horowitz, S.D.(2000). Evaluation of clinical competencies: basic certification, subspecialty certification, and recertification. *Am J Phys Med Rehabil*, 79, 478-480
- Hulsman, R.L. et al.(2006). Using standardized video cases for assessment of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reliability of an objective structured video examination by computer.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60(1), 24-31.
- Judith, F. et al.(2004). Teaching medical students what they think they already know. *Education for Health*, 17(1), 35-41.
- Suzanne, K. et al.(2005). *Teaching and learning communication skills in medicine*. Second Edition, Radcliffe publishing.
- Webster, L.A.(2005). Sharpen your communication skills. Here comes generation Y. *MGMA Connex*, 5(8), 42-47.

부록 1. 2005학년도와 2006학년도 의예과 2학년 ‘의사소통’ 수업내용 비교

2005학년도	2006학년도
나의 성격이해 하기 - 에니어그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담당교수 소개, 일정 안내, Worksheet 배포 1. 자기 인식하기 1 ■ 활동: MBTI 검사 실시, 해석, 활동
중간고사 기간 - 수업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자기 인식하기 4 ■ 활동 1: 의사소통 수준 확인하기 (사전검사 설문) ■ Video Clip ■ 강의: 의사소통이란? 왜 필요한가? ■ 활동 2: Ego gram & Johari's window
역할극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관계형성하기 & 대화열기 ■ 강의: 인간관계란? - 관계형성과 대화열기 ■ 활동: “한 쌍의 대화” (2인 1조)
A조 - 교실에서 역할극 실시 (59명) B조 - PBL실습실에서 역할극 실시 8명씩 6개 조, 총 4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정보수집하기 ■ 강의 1: 개방형, 효율적 질문하기, 전달 내용 요약, 재진술하기 ■ 활동 1: 개방, 효율적인 질문해보기 ■ 강의 2: 경청, 반응, 관심주기, 언어적/비언어적 ■ 활동 2: Verbal/Non-verbal game, 경청, 반응, 관심 기울이기
B조 - 교실에서 역할극 실시 (48명) A조 - PBL 실습실에서 역할극 실시 8명씩 6개조, 11명 (1개조), 총 5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상대방의 시각 이해하기 ■ 강의 1: 감정조절/표현, 명확한 반응, 공감, 격려, 존중, 이타심 ■ 활동 1: 감정조절, 공감, 존중하기 ■ 활동 2: 나의 장점과 개선점 확인하기 (2인 1조)
각 조별 역할극 총평 - 비디오 녹화 보기	중간고사 기간
1학기 종합평가 - 강의소감 및 강의평가 설문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6. 갈등, 스트레스 다루기 &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 강의 1: 갈등의 형태, 갈등/스트레스 해결 기법 ■ 활동 1: ‘I-message’, 문제소유가리기 ■ 강의 2: 폐쇄적 질문,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 활동 2: 폐쇄적 질문, 비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7. 영화상영 & 토의 8. 자기 표현하기 & 설득하기 ■ 발표 1: 모의 토론장 - ‘Who’s going to survive?’ ⇒ 1조, & 2조 ■ 발표 2: 포스터 광고 & 판매 ⇒ 3조: ‘에스키모에게 냉장고 팔기’ ⇒ 4조: ‘열대지방에서 모피코트 팔기’ ■ 발표 3: 의과대학 살아남기 5조: ‘의과대학에서만 쓰는 외계어’ 6조: ‘스트레스, 이렇게 풀자’ 7조: ‘의대생이 반드시 지켜야할 10계명’ 8조: ‘10년 후 나의 모습’ 9. 효율적인 의사소통 &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 발표 4: 역할극 9조: ‘레지던트 면접보기’ 10조: ‘교통사고 난 친구 문병가기’ 11조: ‘10일 안에 애인차기’- 효율적 의사소통 12조: ‘10일 안에 애인에게 차이기’- 비효율적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 마무리하기 ■ 활동: Flower Pedal 검토 및 확인 (2인 1조) ■ 종합 토의

부록 2. 의예과 2학년 ‘의사소통’ 사후검사지

이름: _____ (번호: _____)

<p>이 설문지는 의사소통 수업 후에 여러분의 의사소통 능력의 변화 정도와 수업의 적절성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자기평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의 7점 척도에 해당하는 점수에 ○표로 표기하여 주십시오.</p>	
<p>매우 못한다 ----- 매우 잘 한다 1 -- 2 -- 3 -- 4 -- 5 -- 6 -- 7</p>	
<p>◎ 관계 형성하기</p>	
<p>1.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반갑게 맞이하고 관심을 보여줄 수 있다. 1 - 2 - 3 - 4 - 5 - 6 - 7 2. 대화중에 관심을 표현하는 언어를 사용하며 적절한 톤으로 말할 수 있다. 1 - 2 - 3 - 4 - 5 - 6 - 7 3. 상대방과 눈을 맞추며 대화할 수 있다. 1 - 2 - 3 - 4 - 5 - 6 - 7</p>	
<p>◎ 대화 열기</p>	
<p>4. 상대방의 말문을 막지 않고 상대방이 대화를 시작하도록 해줄 수 있다. 1 - 2 - 3 - 4 - 5 - 6 - 7 5. 상대방에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것이 없는지 물어볼 수 있다. 1 - 2 - 3 - 4 - 5 - 6 - 7 6. 현재의 문제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조율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 방법이나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 1 - 2 - 3 - 4 - 5 - 6 - 7</p>	
<p>◎ 정보수집하기</p>	
<p>7. 개방형 질문을 던져주어 상대방이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1 - 2 - 3 - 4 - 5 - 6 - 7 8. 구체적인 내용은“네/아니오”로 답하는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여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다. 1 - 2 - 3 - 4 - 5 - 6 - 7 9. 중요한 내용의 전달할 때에는 전달 내용을 요약하고 확인할 수 있다. 1 - 2 - 3 - 4 - 5 - 6 - 7 10. 문제와 관련된 기타 다른 내용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연결 지어 얘기할 수 있다. 1 - 2 - 3 - 4 - 5 - 6 - 7</p>	
<p>◎ 상대방의 시각 이해하기</p>	
<p>11. 선입견을 버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다. 1 - 2 - 3 - 4 - 5 - 6 - 7 12.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대화할 수 있다. 1 - 2 - 3 - 4 - 5 - 6 - 7 13.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신념, 관심 영역이 무엇인지 대화중에 이끌어낼 수 있다. 1 - 2 - 3 - 4 - 5 - 6 - 7 14. 상대방이 표현하는 생각, 감정, 가치 등에 숨김없이 명확하게 반응해줄 수 있다. 1 - 2 - 3 - 4 - 5 - 6 - 7</p>	
<p>◎ 정보 공유하기</p>	
<p>15. 상대방이 문제상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 1 - 2 - 3 - 4 - 5 - 6 - 7 16. 상대방이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이를 인지할 수 있다. 1 - 2 - 3 - 4 - 5 - 6 - 7 17.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대화할 수 있다. 1 - 2 - 3 - 4 - 5 - 6 - 7 18. 상호이해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1 - 2 - 3 - 4 - 5 - 6 - 7</p>	
<p>◎ 의견일치 보기</p>	
<p>19. 상대방에게도 선택권을 주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다. 1 - 2 - 3 - 4 - 5 - 6 - 7 20. 결정사항에 따를 수 있는 지 물어볼 수 있다. 1 - 2 - 3 - 4 - 5 - 6 - 7 21. 추가적인 정보, 자료들은 필요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 1 - 2 - 3 - 4 - 5 - 6 - 7 22. 다양한 의견이나 상충되는 의견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1 - 2 - 3 - 4 - 5 - 6 - 7</p>	
<p>◎ 마무리 짓기</p>	
<p>23. 더 이상 궁금한 점은 없는지 질문할 수 있다. 1 - 2 - 3 - 4 - 5 - 6 - 7 24. 합의 의견에 대한 정리와 요약할 수 있다. 1 - 2 - 3 - 4 - 5 - 6 - 7 25. 차기 모임이나 계획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다. 1 - 2 - 3 - 4 - 5 - 6 - 7</p>	

